

일본의 새소식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公報文化院
☎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4 Tel. 02.765.3011~3



01-02

2017 | Vol. 542

미에현 이세시 메오토이와(三重県 伊勢市 夫婦岩)
Photo : Kazuhisa Ishikawa

나가미네 주한일본대사 신년사



丁酉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께서는 활기차게 새해를 맞이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의 일한 관계를 되돌아보면, 2015년 일한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형성된 뚜렷한 관계 개선의 기조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가 크게 진전된 한 해였습니다. 연초부터 양국 정부 간 고위급 회담이 빈번히 개최되었고, 2015년 말의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한 합의 이후로 양국 관계가 긍정적으로 진전하고 있음을 평가하며, 폭넓은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것, 또, 북한에 대한 공고한 자세를 확인하고 계속 긴밀히 공조해 갈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한 경제 관계로 눈을 돌리면, 10월에 경단련과 전경련이 함께 개최한 일한 재계회의와 일한중 경제통상장관 회의에서는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제3국으로의 공동진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문화·인적 교류 분야에서도 진전을 보였습니다. 양국의 방문자 수 합계는, 지난해에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또 매년 가을에 열리는 '한일축제한마당'을 비롯한 지방 간 행사를 포함해 수많은 교류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모두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지난해 8월, 부임 인사에서 말씀 드렸듯이, 미래 지향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의 일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4가지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첫째, 일한 관계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안정 및 번영에 공헌할 수 있도록 협력과 연계를 더욱 강화할 것.

둘째, 문화·인적 교류, 지방 교류, 스포츠 교류 등 양국 국민 간의 다양한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것.

셋째, 경제 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것.

그리고 넷째, 한국 내의 일본 국민에 대해 빈틈없는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4가지 목표입니다.

올해도, 이 4가지 목표를 착실히 실천하고 일한 간의 협력과 교류를 작년 이상으로 활성화시켜 일한 관계를 더욱 비약적으로 발전시켜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일본대사관원 일동은 온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여러분에게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 만들자 새로운 50년



지난 2014년 8월 한국에 부임해 어느덧 2년 5개월이 지났고, 이번에 뉴욕총영사관 홍보센터장으로 전근하게 되어 2017년 1월에 서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간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일한 관계 강화를 위한 지원과 지도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일한 국교정상화 50주년이었던 2015년 6월, 양국 정상이 대사관 주최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일한 신(新)시대를 향한 큰 흐름이 일었던 일이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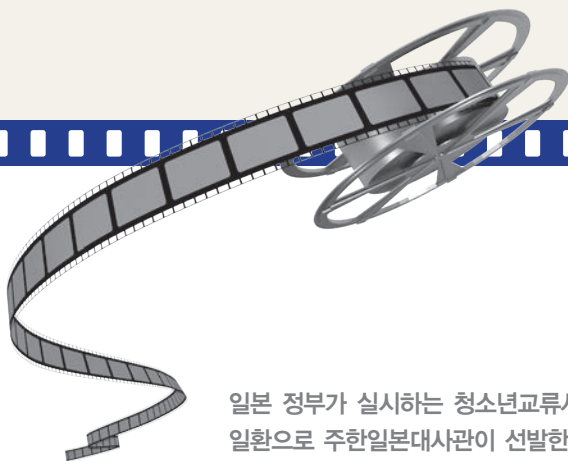
양국 최대의 풀뿌리 문화 교류 행사인 ‘한일축제한마당 in Seoul’의 운영에도 세 차례나 관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실시된 2015년 축제에서는 조선통신사 퍼레이드를 재현하고 일한 우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등, 일한 관계의 미래지향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그 후, 모처럼 만에 일한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연말에는 위안부 합의가 발표되는 등 2015년은 일한 관계가 크게 움직인 해였습니다.

한국에는 일본에 대한 관심과 교류에 강한 열정을 가진 분이 많아 일본어 교육도 활발합니다. 일본대사관에서도 학생들의 일본어 연극과 디베이트, 스피치대회를 주최하고, 일본가요대회와 일한포토콘테스트 등을 통한 문화교류에도 힘을 쏟아 왔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 드라마와 K-POP 등에 대한 관심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이 있는데, 저 역시, 사극에 흥미가 생겨 ‘주몽’과 ‘대조영’ 전편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음식 중에는 백숙을 가장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일한 간의 인적교류는 청소년 상호방문 프로그램(JENESYS), 유학, 일본의 지방공공단체에서 근무하는 JET 프로그램 등의 형태로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류 하나 하나의 영향력은 작아 보여도 틀림없이 서로의 우정과 상호이해를 높여, 양국 국민의 신뢰관계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일하는 틈틈이 한국에 공부, 지방 여행, 등산에도 도전했습니다. 이렇게 쌓은 경험을 양식으로, 앞으로도 한국 분들과 교류를 이어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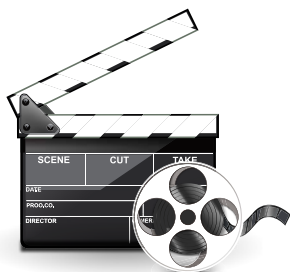
일한 양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입니다. 이 관계는 향후에도, 안보, 정치, 경제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발전과 일한 협력이 더욱 진전하기를 기원하며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장 사토 마사루(佐藤 勝)



꿈 같은 아시아국제청소년영화제 문부과학대신상 수상

이미지 매항여자정보고등학교



‘내가 싫어하는 것(私の嫌いなこと)’을 주제로 ‘아시아국제 청소년영화제’ 본선에 참가하게 되어 일본 방문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일본은 학교 일본어 수업시간을 통해 배운 나라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생애 첫 일본 방문이었기 때문에 가기 전부터 많이 설레었고 큰 기대를 하게 되었다. 경험한 내용을 간략하게 일정 순서대로 적어보자면, 첫째날은 환영식과 오리엔테이션, 둘째 날은 컬링(curling)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청소년교류사업 ‘JENESYS 2016’의 일환으로 주한일본대사관이 선발한 한국 고등학생 10명(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화성고등학교, 매항 여자정보고등학교 학생 각 3명과 인술교사 1명)이 2016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6박 7일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이번 방일단은 아시아 각국에서 선발된 청소년들과 함께 홋카이도(北海道) 기타미시(北見市)에서 개최된 ‘2016 아시아 국제청소년영화제’에 참가했다. 이번 영화제의 테마는 ‘내가 싫어하는 것’으로 한국 예선과 일본 본선 심사를 거쳐, 매항 여자정보고등학교가 문부과학대신상(文部科学大臣賞)을 수상하는 등 한국 학생들의 작품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체험 후, 다른 친구들이 제작한 영상작품을 감상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라도 언어도 다른 청소년들이 각기 다른 아이디어로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놀랍고 신기했다. 저녁엔 각국 지역으로부터 참가한 아시아 친구들과 함께 교류회를 가졌는데, 각자 준비해온 선물과 명함도 주고받고 음식도 먹고 대화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3일째 되던 날은 영화제 본선 대회에 참가했는데, 우리 팀은 놀랍게도 문부과학대신상을 수상했다. 한국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에 진출한 것만으로도 너무 놀라운 일이었는데, 본선에서 문부과학대신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했다. 4일째부터는 일본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도쿄로 이동했다. 일본 전통 옷인 기모노도 입어보고, 오에도 온천(大江戸温泉物語), 도쿄 스카이트리, 센소지(淺草寺) 등 여러 유명한 관광지도 가보고, 다양한 일본 음식도 먹었다. 일본어 수업시간에 책으로만 보던 곳을 직접 보고, 또 먹어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다. 마지막 날에는 사이타마현립예술고등학교(埼玉県立芸術総合高等学校)를 방문해서 학생들과 교류활동을 하면서 전체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서 평소에는 체험하지 못했던 일본 문화를 체험하고 일본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알아 갈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나처럼 영상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과 함께 교류하며, 같이 영상을 찍고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잊지 못할 소중한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것은 나 혼자 일본을 방문했더라면 할 수 없었을 국제교류활동을 통해서 아시아 각



국의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이야기 할 수 있었던 점이 정말 좋았다.

나는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국제교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실제로 이번엔 만난 친구들과 아직까지도 꾸준히 온라인 상으로 연락을 계속하고 있고, 편지도 주고받고 있다. 앞으로도 그들과 꾸준히 교류하면서, 이 경험을 토대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싶다.



요나고 시와 속초시의 폴뿌리 교류

가이케 온천 <http://www.kaike-onsen.com/korean/hot.html>

요나고 시(米子市)는 일본 돗토리 현(鳥取県) 서부, 산인 지방(山陰地方)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며, 동으로는 호키후지(伯耆富士)라고도 불리는 다이센(大山) 국립공원, 북으로는 일본해, 서로는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크기를 자랑하는 기수호(汽水湖, 해수와 담수가 섞여 있는 호수)로 랍사르 협약에도 등록된 나카우미(中海) 같은 풍요로운 자연에 둘러싸여 있다. 또 일본 트라이애슬론의 발상지인 바다에서 용출하는 온천수로 유명한 가이케 온천(皆生温泉), 다이센 산기슭에서 나는 '양질의 지하수' 등의 천연자원이 있다. 1995년 10월, 강원도 속초시와 요나고 시는 자매도시 결



속초시·요나고 시 마스코트 캐릭터,
해오미(속초)를 둘러싼 요네기즈(요나고)

연을 맺고, 폴뿌리 차원의 우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교류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한국과의 교통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항로는 2001년 4월부터 요나고-서울 국제선 정기 항공편이 취항하고 있으며, 2016년 10월부터는 에어서울이 운항하고 있다. 해로는 2009년 6월부터 사카이미나토(境港) 시-동해시-블라디보스토크 간을 DBS 크루즈페리 국제 정기여객선이 운항하고 있다. 모두 속초시와의 교류에 주요 축이 되고 있다.

요나고 시와 속초시의 교류

속초시와는 직원 상호파견 교류, 아동 그림 교류, '돗토리 현 서부지구 일한친선협회'의 '속초시·요나고 시 자매위원회'와의 상호 민간 교류 등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특별한 교류 사례로서 예능 교류를 소개하고자 한다. 오랫동안 요나고 시 지정 무형 민속문화재 '요도에 산코부시(淀江さんご節)'의 보존과 계승에 힘쓰며, 지역에



속초시립풍물단과 요도에 산코부시 보존회(2010년 10월 속초시립박물관 교류회)



속초시립풍물단과 함께 춤추는 출연자(2012년 8월 돗토리 덴토 게이노 마쓰리)

전해지는 소중한 전통문화의 진흥에 많은 공헌을 해 온 ‘요도에 산코부시 보존회’가 그 대표적인 단체다.

이 보존회는 속초시와 요나고 시의 자매도시교류 15주년 기념으로 속초시 ‘설악 문화제’에 문화교류단으로서 요나고 시가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과 2011년 2년 연속 참가했다. 이때 속초시립풍물관 소속 ‘속초시립풍물단’과 전통예능을 통해 돈독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지금도 교류하고 있다.

2010년 ‘요도에 산코부시 보존회’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요나고 시 구만토 이키이키 살롱(米子市熊党いっききサロン)’ 관계자들은 한복을 여러 벌 구입해 한국의 전통 춤인 아리랑, 도라지를 배워 지역민에게 선보이고 있다. 2011년 2차 방한 시, 무용단을 운영하는 양숙희 선생님께서로부터 직접 한국의 전통 춤을 배울 정도로 열심이다. 2012년, 이번에는 돗토리 현이 속초시립풍물단을 이 지역 전통 예능 축제인 ‘돗토리 덴토 게이노 마쓰리(とっとり伝統芸能まつ



속초시 대포초등학교 설악 청소년 국악관현악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공연 (2015년 1월 요나고 시내 백화점)

り)’에 초청했다. 이때, 요나고 시를 대표하는 ‘요나고 가이나 마쓰리(米子がいな祭)’에도 참가하여, 한국 전통 예능을 널리 지역민에게 소개했다. 또 어린이들에게 사물놀이 체험 강좌를 실시하며, 요도에 산코부시 보존회와의 교류를 더욱 강화했다.

이 속초시립풍물단과 요도에 산코부시 보존회의 인연으로 2015년 1월 31일, 요나고 시내 백화점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공연이 성사되었다. 속초시 대포초등학교 설악청소년 국악관현악단 ‘아리아리가’ 방일, 한국의 전통 현악기 연주로 올림픽 주제곡의 모티브가 된 ‘Fly to the sky’ 등을, 일본에서 처음으로 요나고 시민에게 선보여 호평을 얻으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멋지게 홍보했다. 이렇게 단단한 인연으로 맺어진 두 단체의 교류 영역은 어린이로도 확대되었다.

한국에서 방문객이 오면 우다가와(宇田川) 청소년육성회 어린이들이 제니 다이코(銭太鼓)를 선보이며 환영하는 방식은 요도에 지역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다.



우다가와 청소년육성회의 제니 다이코(2015년 2월 우다가와 마을회관)



양숙희 무용단, 설악의 향기(2015년 8월 요나고 시 만토 마쓰리)



설악문화제에서 요나고 가이나 북 공연(2015년 10월 속초시)

그리고 2015년 8월에는 요나고 가이나 마쓰리에 양속희 무용단을 초청하여 '만토 마쓰리(万灯まつり)'에 참여시키는 등, 요나고 시민에게 속초시와의 교류를 강력하게 어필했다. 또 양속희 무용단도 요도에 산코부시 보존회와 교류를 가졌으며,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속초시와 요나고 시의 교류는 현재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적인 뒷받침은 필요하겠지만, 진정한 교류는 민간의 풀뿌리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부가, 국제 교류의 진가를 가르게 될 것이라고 명심하며, 평소부터 노력하고 있다.

또, 2015년 10월 설악문화제에 '요나고 가이나 북 보존회(米子がいな太鼓保存会)'가 가이나 북 연주를 선보이며, 자매도시 결연 20주년과 제50회 설악문화제에 참가했다. 2016년 2월, 강원도 강릉시에서 개최된 'G2 올림픽 축제'에 요나고 하쿠호 고교 향토예능부(米子白鳳高校郷土芸能部)가 초청되어 요도에 산코부시를 선보였다. 이때, 속초시에서 50명이 넘는 시 직원 여러분이 현수막을 들고 응



요나고 하쿠호 고교 향토예능부원과 속초시 직원(2016년 2월 강원 강릉시)

원하여, 부원 모두가 크게 감격했다.

나아가 속초시 요나고 시 자매위원회와 돗토리 현 서부지구 일한친선협회의 민간에 의한 청소년 홈스테이 상호교류가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일본에 온 학생을 가이나 마쓰리 퍼레이드에 참가시키는 등 교류의 폭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2016년 7월, 돗토리 현 서부지구 일한친선협회와 속초시 요나고 시 자매위원회 민간 교류 15주년을 맞이하여, 돗토리 현 서부지구가 한국을 방문한 가운데 중학생 축구 교류, 홈스테이, 일본의 전통적인 기모노 쇼 같은 문화교류 등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두 시의 풀뿌리 교류를 정착시키며, 일한우호 교류의 모범적인 자매도시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1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한다.

(집필: 요나고 시, 협력: CLAIR, Seoul)



요나고 가이나 마쓰리 퍼레이드 출발 전의 한국 학생들(2014년 8월 요나고 시청 앞)



돗토리 현 서부지구 일한친선협회 · 속초시 요나고 시 자매위원회 민간교류 15주년 기모노 쇼(2016년 7월 속초시 호텔)

일본 만화 전문번역가 서현아

한국을 대표하는 일본 만화 전문번역가이자, 출판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번역가 중 한 명이기도 한 서현아 씨.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에서 히트친 만화를 포함해서 수 백권의 작품을 번역하고 있다. 취미로 보던 만화를 자신의 말로 표현하고 싶어서 번역가가 되었다는 그녀의 일본 만화에 대한 애정 등을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았다.

일본 만화 번역가가 되려고 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일본어보다 일본 만화를 먼저 접했어요. 그래서 만화를 원작 그대로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본격적으로 일본어를 공부했습니다. 7~8년 동안 취미로 일본어를 배우다, 일본어를 '내 말로 옮겨보고 싶다'는 생각에 번역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번역가를 직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번역한 만화 가운데, 본인이 직접 추천한 작품도 있다고 들었는데, 일본 만화 관련 정보는 어디서 얻고 있습니까. 또,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대부분은 출판사 의뢰로 번역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지만, 일반 독자 여러분이 만화를 고를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리뷰나 SNS, 만화 관련 커뮤니티의 의견을 참고로 만화 관련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애착이 가는 작품은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로 일본어 공부를 시작한 계기가 된 작품입니다. 처음 접했을 때부터 꼭 번역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운이 좋게도 원작 만화를 번역하는 기회를 얻어, 매우 애착이 가는 작품입니다.

번역하면서 힘든 점이나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흔히 일본어는 한국어와 비슷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게 일본어 표현을 그대로 직역



日本の漫画の翻訳家になろうと思ったきっかけは何ですか。

私は日本語よりも先に日本の漫画に触れました。そのため、漫画を原作のまま読めるようになりたいと思い、本格的に日本語を勉強しました。7~8年間、趣味で日本語を学ぶうちに、日本語を「自分の言葉で訳してみたい」と考えて翻訳を習い始め、その後、翻訳家を職業とすることとなりました。

翻訳した漫画の中には自ら推薦した作品もあると聞きましたが、日本の漫画に関する情報はどのように手に入れていますか。また、愛着がある作品があれば教えてください。

ほとんどは出版社から依頼を受けて翻訳するので、私が漫画を推薦するケースはごく一部ですが、一般の読者の方と同様に、日本のインターネット・サイトにあるレビューやSNS、漫画関連コミュニティの意見を参考にし、漫画に関する情報を得ています。特に愛着のある作品は『風の谷ナウシカ』で、日本語の勉強を始めたきっかけになった作品です。初めてこの作品に出会った時から是非翻訳してみたいと思っていましたが、幸運にも原作の漫画を翻訳する機会に恵まれ、非常に思い入れが深い作品です。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일본어는 동사나 형용사를 명사화하거나 수동태가 발달해 있는데, 이를 그대로 한국어로 옮기면 어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일본어에는 아주 다양한 의성어와 감탄사가 있어서, 의성어 자체가 캐릭터의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제 경우는 연재 중인 작품을 번역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1권에서 파악한 캐릭터의 특징이 2권을 읽어보면 아예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결된 작품이 아니라, 연재 중인 작품을 번역하기 때문에 항상 작품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저는 ‘가독성(可讀性)’에 중점을 두며 번역하고 있습니다. 만화는 많은 대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번역한 대사를 직접 말해보기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본 만화의 매력과 좋아하는 만화가 있다면.

일본 만화의 매력은, 한국에서는 다룰 수 없을 것 같은 내

翻訳をする上で苦労すること,または,重点をおいている部分は何ですか。

よく日本語は韓国語に似ていると言われますが, 実際そうではありません。自分でも気づかないうちに日本語の表現をそのまま直訳してしまう時があります。特に, 日本語は動詞や形容詞を名詞化したり, 受動態が発達していますが, これをそのまま韓国語に訳すと不自然な場合が多いです。また, 日本語には非常に様々な擬声語や感嘆詞があり, 擬声語自体がキャラクターの特徴になることもあります。私の場合は連載中の作品を翻訳することが多いため, 1巻で把握したキャラクターの特徴が, 2巻を読んでもみると全く変わってしまっている場合もあります。完結した作品ではなく, 連載している作品を翻訳するため, 常に作品の内容に注意を注がなければならない大変さがあります。私は「可読性」に重点を置きながら翻訳をしています。漫画は多くの台詞でできているため, 読者が読みやすいように翻訳することが重要です。そのため, 翻訳した台詞を直接口にしてみるなどして, 不自然な部分はないかを確認しています。

용과 소재를 포함해, 다양한 장르를 커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만화가 '니시모리 히로유키' 선생의 작품을 좋아하는데, 한 곳도 소홀히 하지 않고 많은 정성을 담아 만화를 그리는 분입니다.

언제 보람을 느끼나요.

제가 번역한 책이 나올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어떤 작품을 번역할 때, 스토리와도 연결되면서 코믹한 요소를 살려야만 하는 '익살스러운 말'이 나와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의 번역을 본 원작자가 '정말 잘된 번역이다'라고 했을 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계획이 있다면.

최근, 번역 엔진의 발달로 한결 자연스러운 번역이 가능해지면서 '이제는 기계와 경쟁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만화뿐만 아니라 모든 문학 작품이 '사람의 창작물이며, 사람의 말로 전하는 작업'이라 아직은 기계보다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화 번역가라는 직업적인 전망은 잘 모르겠지만, 만화가 나오는 한 계속해서 번역하고 싶습니다.

日本の漫画の魅力と好きな漫画は。

日本の漫画の魅力は、韓国では扱えなさそうな内容や素材を含め、様々なジャンルをカバー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私は漫画家「西森浩之」先生の作品が好きですが、少しも気を抜かず、非常に真心を込めて漫画を描く先生です。

どのような時にやりがいを感じますか。

私が翻訳した作品が出るたびにやりがいを感じます。特に、ある作品を翻訳する際、ストーリーとも繋がりがあり、コミカルな要素を活かさなければならない「駄じゃれ」が出て、悩みに悩んだことがあります。後に、この部分の翻訳を見た原作者が「非常に良くできた翻訳だ」と話してくれた時、大きなやりがいを感じました。

今後の目標や計画は。

最近、翻訳エンジンの発達により、一層自然な翻訳が可能になったことから、「これからは機械と競争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とも考えました。しかし、漫画だけでなく、全ての文学作品が「人間による創作物であり、人間の言葉で伝える作業」ですので、まだ機械より人間の方が上手く訳す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漫画の翻訳家という職業における展望はよく分かりませんが、漫画が出続ける限り、引き続き漫画を翻訳したいです。



шел리 케이크

온통 핑크빛의 포근한 분위기가 가득한 ‘шел리 케이크’. 나카무라 아카데미 ‘제과 전문코스’ 우수 졸업자인 이태경 파티시에가 운영하는 카페다. 신년 호에서는 그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일본의 ‘스위트’ 등 제과의 세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본의 제과를 배우게 된 계기는.

나카무라 아카데미에 들어가기 전,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공부했어요. 그때 주말마다 백화점 지하의 스위트 매장에서 케이크를 사 먹는 것이 제게는 큰 행복이었고, 일본 스위트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죠. 한국에 돌아와서는 초콜릿 카페를 운영하며 초콜릿 만드는 일을 했지만, 아무래도 케이크가 만들고 싶어서, 일본의 제과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우고자 나카무라 아카데미의 ‘제과 전문코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본 케이크와 한국·프랑스 케이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같은 케이크라도 프랑스에서 선호하는 케이크와 한국, 일본에서 선호하는 케이크는 달라요.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부드러운 시트 케이크보다 ‘타르트’나 ‘슈’ 종류를



좋아하고, 사용되는 초콜릿과 과일도 맛이 진한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부드러운 스펀지 시트에 생크림이 들어간 케이크를 선호합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은 입맛이 비슷해서, 프랑스 같은 서구식 케이크보다 일본식 케이크가 기호에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예전부터 일본 스타일의 케이크가 판매되었고, 지금도 많은 분이 일본에서 케이크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шел리 케이크’라는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되었나요.

사실, 처음에는 일본식 이름으로 지으려 했지만, 아무래





도 손님들이 기억하기 쉬운 영어 이름이 좋겠다 싶었습니다. 또, '분홍색 하면 떠오르는, 부드러운 생크림 케이크를 파는 가게'라는 이미지와 '셸리'라는 이름이 잘 어울린다는 생각에 이렇게 붙이게 되었습니다.

케이크를 만들거나, 가게를 운영하며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가게를 확장하기보다는 '케이크의 맛'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지점을 내면 수익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케이크의 맛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점이든 같은 제조 방식으로, 조금 낮은 질이지만 일정한 수준의 맛을 내는 방법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케이크의 맛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가게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방부제나 유화제를 쓰지 않고, 유기농 무항생제 달걀을 사용하는 등 좋은 재료로 만들려 노력할 겁니다. 또, 맛있는 케이크와 함께 홍차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믿을 수 있고, 오랫동안 같이 일할 수 있는 파티시에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있지만, 혼자서 케이크를 만들며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다양한 케이크를 손님께 제공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돼서 매우 아쉽습니다. 파티시에를 어렵게 고용하더라도 레시피를 배우고 나면 그만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일본 후쿠오카의 '페이 바스크'라는 곳에서 잠시 케이크 만드는 법을 배우기도 했는데, 파티시에가 되고 싶은 수십 명의 연수생이 함께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적절한 가격으로 맛있는 케이크를 제공할 수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소규모로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재료 공급이 불안정할 때도 있습니다. 올여름에는 생크림 품귀현상으로 케이크를 만들지 못해 가게 문을 닫은 적도 있었고, 지금은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달걀을 구하기가 힘들어 걱정입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목표는.

최근에는 이목을 끄는 화려한 모양의 케이크가 많지만, 저는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한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고 싶습니다. 맛이나 위생 등 기본적인 것을 지키면서 케이크를 제공하다, 기회가 되면 신뢰할 수 있는 좋은 파티시에와 함께 지금보다 더 다양한 종류의 케이크를 만들고 싶습니다.



스릴 넘치는 뱃놀이 호즈가와くだ리

교토 부 가메오카 시 사계절이 자아내는 아름다운 거리 가메오카

풍요로운 자연과 유구한 역사가 있는 교토 부 가메오카 시(京都府 亀岡市)는 게이한신(京阪神, 교토·오사카·고베 지역) 도시권에 가까우면서도 녹음이 우거진 자연 환경을 지녔다. 유노하나 온천(湯の花温泉), 호즈가와くだ리(保津川下り), 토롯코 열차(トロッコ列車), 사계절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관광지도 많다. 또, 맑은 물로 기른 채소나 쌀을 비롯해서 소고기 브랜드 가메오카규(亀岡牛)를 사용한 매력적인 가메오카 구르메(亀岡グルメ)를 즐길 수 있다.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관광열차 사가노 토롯코 열차

차창으로 바라보는 절경, 토롯코 열차

복고풍 디자인이 귀여운 사가노 토롯코 열차(嵯峨野トロッコ列車)는 ‘로맨틱 트레인’이라는 애칭으로 익숙하다. 계곡을 따라 눈 아래 펼쳐지는 파노라마를 보면서 여유롭게 관광 열차의 흔들림을 느껴보자. 토롯코 가메오카 역에 도착한 후에는 교바샤(京馬車)라 부르는 마차를 타고 한가로운 전원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목가적인 매력이 넘치는 여행의 시작이다.

계곡의 아름다움과 스릴을 즐길 수 있는 뱃놀이, 호즈가와くだ리

호즈가와くだ리는 약16km의 계곡을 2시간에 걸쳐 내려가는 풍류 넘치는 뱃놀이이다. 봄의 산 벚꽃, 가을 단풍, 겨울의 장엄한 설경까지 1년 내내 웅대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숙련된 뱃사공이 장대를 저어 뚫고 나가는 스릴 만점의 급류도 볼거리 중 하나다.

더한층 박진감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는 래프팅 체험을



가메오카의 풍요로운 자연을 즐기자

추천한다. 호즈가와쿠다리와 동일한 루트를, 고무 보트를 타고 팀워크로 헤쳐 나가는 상쾌함은 각별하다.

일상에서 벗어나 조용한 산간 온천지에서 보내는 한때, 유노하나 온천

전국 시대 장수들이 칼에 베인 상처를 치료했다고 전해지는, 교토의 한적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유노하나 온천’. 떠들썩한 도시를 떠나 맑은 공기와 천연 라듐 온천에서 보내는 유유자적한 시간은 일상에서 벗어난 한때를 선사한다. 봄에는 산나물, 여름에는 은어, 가을은 송이 버섯, 겨울은 보탄나베(뱀돼지고기 전골) 등 한적한 온천지에서 맛보는 계절 음식과 ‘오모테나시(진심 어린 환대)’에 몸도 마음도 치유된다.

옛 운치를 느끼게 하는 성하 마을

전국시대의 지장(知將)·아케치 미쓰히데(明智光秀)가



운치 있는 성하 마을

다스리던 성하 마을(城下町)이 가메오카다. 지금도 당시의 성터와 거리가 남아 있어 여행자에게 아득한 역사와 낭만을 느끼게 한다.

영험한 신사와 사찰 순례

신사와 사찰 순례(寺社仏閣めぐり). 가메오카에는 결혼과 쾌유, 가내 안전에 영험하다는 신사와 사찰이 많다.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하려면, 일본에서 가장 빨리 돌아볼 수 있다는 ‘단바 시치후쿠진 메구리(丹波七福神めぐり)’ 즉 단바의 칠복신 순례를 추천한다. 대여 자전거를 이용하면 바람을 느끼며 느긋하게 7개 절을 방문할 수 있다.

순례 길에, 지은 지 300년 이상 된 무사 저택인 ‘헤키테이(へき亭)’에서 아름다운 일본정원을 바라보며, 지역 식재료로 만든 일본 요리를 맛보며 쉬어가자.

아케치 미쓰히데가 즐겼다는 요리를 재현한 ‘부쇼메시(武将めし)’도 인기다.



휴식과 치유의 공간, 유노하나 온천



대여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가르며 달려보자



눈 아래 펼쳐지는 웅장한 파노라마 '운해'

환상적인 안개 '운해'

겨울 가메오카의 풍물시인 안개 '운해(雲海)'. 주위가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시내 중심부를 강이 흐르는 분지라는 입지 조건 때문에, 늦가을부터 겨울까지 시가지는 짙은 안개로 덮이며 환상적인 경치를 만들어 낸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운해는 절경을 이룬다. 아침 일찍 일어나 웅장한 파노라마를 보는 것도 좋다.

섬세한 화과자의 세계로

화과자(和菓子)에 빠지지 않는 재료인 '팥' 중에서도, 가메오카산 '교토 다이나곤 아즈키(京都大納言小豆)'는 빛깔이 좋고 껍질이 얇지만 삶아도 쉽게 뭉그러지지 않아, 한 알 한 알을 소중히 여기는 교토의 화과자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화과자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가게도 있어, 보기에도 화려한 화과자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가메오카 특유의 소재를 살린 화과자는 선물로도 적합하다.



균일한 마블링과 최상의 육질을 자랑하는 가메오카규

고기도 채소도 최고! 가메오카 구르메

깨끗한 물과 많은 영양분을 함유한, 풍족한 토양의 가메오카는 채소의 일대 생산지다. 이곳 대지에서 자란 농작물은 자양분이 많고 뛰어난 맛을 자랑하는 으뜸 상품뿐이다. 일본요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교야사이(京野菜, 교토산 채소)'의 보고로도 유명하다.

농작물 외에, 맛 좋은 흑모 와규 '가메오카규(亀岡牛)'도 일품이다. 기온 차가 심한 풍토가 고기의 깊은 맛을 끌어낸다. 또 사육 기간이 14개월 이상으로, 다른 브랜드의 소보다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 키우고 있다. 품질 관리도 철저하여, 판매점에는 인증서가 교부되며 상품에는 인증 스티커가 붙는다. 또 명주의 고장이기도 하다. 전통 기술과 맛있는 물로 만든 토속주를 맛 볼 수 있다. 시내에는 이들 특산품으로 요리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음식점이 다수 있으니, 꼭 한번 맛보기 바란다.

[교통편]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 JR 간사이(関西) 공항 역에서 교토행 특급(하루카)으로 약 75분, 교토 역에서 JR 사가노선으로 갈아타고 약 20분.
- 공항 리무진 버스로 약 100분, 교토 역에서 JR 사가노선으로 갈아타고 약 20분.

●오사카 국제공항에서

- 오사카모레일의 오사카(大阪) 공항 역에서 약 12분, 센리(千里) 중앙 역에서 기타오사카(北大阪) 급행열차로 갈아타고 13분, 신오사카(新大阪) 역에서 JR 교토선 신쾌속열차로 갈아타고 24분, 교토 역에서 JR 사가노선으로 갈아타고 약 20분.
- 공항 리무진 버스로 약 55분, 교토 역에서 JR 사가노선으로 갈아타고 약 20분.

●고마쓰 공항에서

- 공항 연결 버스인 고마쓰(小松) 역 행 버스로 12분, 고마쓰 역에서 JR 호쿠리쿠혼 센(北陸本線) 특급 선더버드(特急サンダーバード)로 갈아타고 약 120분, 교토 역에서 JR 사가노선으로 갈아 타고 약 20분.

(집필: 가메오카 시, 협력: CLAIR, Seoul)



도쿄 도심 속 조그마한 밀림, 요요기 빌리지

이승환 일본문화원 리포터 2기

일본의 제 1도시답게 도쿄에는 현대적인 건축물과 하늘을 가리는 마천루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도시 환경 속에서 조그마한 밀림 같은 공간을 만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신주쿠(新宿)의 요요기역(代々木駅)에는 요요기 빌리지(代々木ビルヂ)라는 독특한 복합소풍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일본의 음악가인 고바야시 다케시(小林武史)를 중심으로 하는 주식회사 KURKKU에서 디자인한 공간입니다. 같은 음악가인 오사와 신이치(大沢伸一)와 함께 전반적인 시설 설계와 최고의 음향 설비를 갖춘 Music Bar 설계를 맡았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가타야마 마사미치(片山正通)가, 요요기 빌리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정원은 플랜트 헌터(Plant Hunter)라 불리는 니시하타 세이준(西畠清順)이 맡았습니다.

사진에서처럼 요요기 빌리지는 건물과 주변 곳곳이 전세계의 다양한 식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꽃이나 식물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요요기 빌리지를 한 바퀴 둘러볼 것을 추천합니다.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다양한 식당과 카페도 만날 수 있는데요. 양식, 카레, 빵집, 카페 등 그 메뉴도 다양합니다.

2층에는 정원을 설계한 니시하타 세이준의 사무실인 소라 식물원(そら植物園)이 있어, 기존 작품은 물론, 꽃과 식물을 모티브로 한 기념품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생활과 예술을 접목시킨 라이프 스타일숍과 죽포(竹布)를 활용한 소품을 파는 매장이 만날 수 있습니다.

도심 속 푸르른 녹색 자연을 즐기면서 쇼핑과 식사도 해결할 수 있는 요요기 빌리지에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겨울방학특선 가족영화

신년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재미와 감동의 가족영화를 상영한다. 1980년대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한 NHK 드라마 '오싱'을 영화화한 극장판 작품을 비롯해 '박사가 사랑한 수식', '지금 만나러 갑니다' 등 다채로운 장르의 일본영화를 상영한다.

시간 14:30(14:00부터 입장)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1월 16일(월) 오싱 おしん

엄마 품을 떠나 본 적 없는 7살의 천진난만한 어린 소녀 '오싱'. 친구들과 뛰어 놀며 학교에도 가고 싶은 오싱은 가난한 살림 때문에 일을 하러 가야만 한다. 엄마의 결혼식 옷을 줄여 만든 새 옷을 입고 가족에게 따뜻한 밥을 선물하기 위해 길을 나선 오싱은 곳곳하게 하루하루를 버틴다.

감독 도가시 신 출연 하마다 고코네, 우에토 아야, 이나가키 고로

1월 17일(화) 박사가 사랑한 수식 博士の愛した数式

최근 수년간 9명이나 되는 가정부를 갈아치운 박사에게 10번째 가정부로 싱글만 교코가 찾아온다. 사고로 80분밖에 기억을 유지하지 못하는 박사와 매일 아침이 첫 대면인 두 사람은 언제나 숫자로 된 인사를 반복해서 나눈다. 어느 날 박사는 교코에게 집에서 기다리는 10살 된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감독 고이즈미 다카시 출연 데라오 아키라, 후카쓰 에리

1월 19일(목) 지금 만나러 갑니다 いま、会いにゆきます

1년 후 비의 계절에 돌아온다는 약속을 남기고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는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그 아들을 챙겨야 하는 어설픈 아빠가 있다.

감독 도이 노부히로 출연 다케우치 유코, 나카무라 시도

1월 26일(목) 비밀의 아코짱 ひみつのアッコちゃ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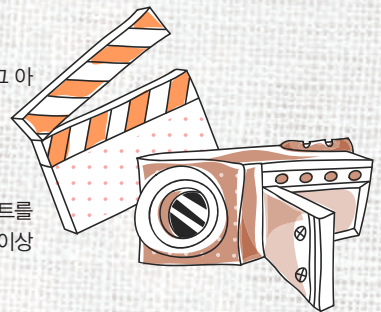
화장이나 패션에 관심이 많은 10살 소녀 '가가미 아쓰코'는 어느 날 거울 요정으로부터 마법의 콤팩트를 선물 받는다. 이를 사용하면 언제든지 22살 대학생의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지만 비밀이 밝혀지면 더 이상 마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감독 가와무라 야스히로 출연 아야세 하루카, 오카다 마사키

1월 31일(화) 딱따구리와 비 キツツキと雨

예순 살의 마츠 나무꾼 가쓰는 아내와 사별 후, 속만 썩이는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다. 어느 날 고요한 산골마을에 영화 촬영팀이 나타나고, 얼떨결에 단역배우가 된다.

감독 오키차 슈이치 출연 야쿠쇼 고지, 오구리 쉰, 고라 겐고



르 코르뷔지에 서울특별전

‘근대 건축의 3대 거장’이라 불리는 르 코르뷔지에 서울특별전이 개최되고 있다. 르 코르뷔지에는 스위스에서 태어나 주로 프랑스에서 활약한 건축가로 그가 설계한 도쿄의 국립 서양미술관을 비롯해 7개국 17작품이 2016년 7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2016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록을 기념하는 특별전으로 건축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처처상을 수상한 세계적 건축가 안도 다다오 씨가 만든 르 코르뷔지에 건축모형 50점이 공개된다. 또한, 건축교육 프로그램으로 안도 다다오 씨 등의 특별강연도 실시된다. 유료관람.

시간 3월 26일(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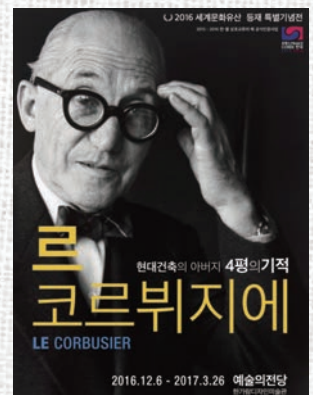
장소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주최 르 코르뷔지에 재단

후원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주한일본대사관, 주한프랑스대사관, 주한스위스대사관,

주한독일대사관, 주한벨기에대사관, 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 주한인도대사관 등

문의 코바나컨텐츠 02-532-4407, www.covana.co.kr



2017 신년일본문화소개전

일본의 설풍경전 & 우키요에 명작전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는 새해 첫 문화행사로서 '2017 신년일본문화소개전'을 개최한다. 고흐, 모네 등 인상주의 화가에게 큰 영향을 미칠 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일본의 전통미술인 '우키요에 명작전'과 '일본의 설풍경전'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전시 외에도 'KANA & 리즈무라이스의 다이도게 공연' 등 흥미진진한 퍼포먼스가 열릴 예정이다.

일시 1월 10일(화)~21일(토) 10:00~17:30(일요일 휴관)

장소 및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후원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문의 02-765-3011(120,123) www.kr.emb-japan.go.jp



일본의 설풍경전

설음식인 오세치 요리(おせち料理) 모형, 가도마쓰(門松) 등 일본의 각종 설 장식과 소품을 통해 일본의 설풍경을 소개한다. 또한 전통 완구 체험과 2017년 12간지가 그려진 카드에 소원을 적어 거는 '에마(絵馬)' 걸기 체험, 새해 소망을 붓글씨로 쓰는 '가키조메(書初め)', 새해 운수를 점치는 '오미쿠지(おみくじ)' 체험, 일본 전통절구와 떡메를 이용한 떡메치기(餅つき) 체험 코너 등도 마련된다. 자유관람. 자유체험.

일시 1월 10일(화)~21일(토) 10:00~17:30

(떡메치기 1월 20일(금) 15:30부터)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층 실크갤러리

우키요에 명작전

일본의 우키요에(浮世絵) 화가인 기타가와 우타마로(喜多川歌麿), 가쓰 시카 호쿠사이(葛飾北斎), 도슈사이 샤라쿠(東洲斎写楽), 우타가와 히로시게(歌川広重) 등의 작품을 소개한다. 또 특별 전시로 근대 우키요에 풍경화의 일인자인 가와세 하사이(川瀬巴水)가 그린 조선풍경화 원본 4점도 함께 전시된다. 자유관람.

일시 1월 10일(화)~21일(토) 10:00~17:30(일요일 휴관)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층 실크갤러리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KANA & 리즈무라이스의 다이도게 공연

홀라후프와 모자 등을 이용한 묘기로 스위스의 퍼포먼스 페스티벌에서 그랑프리를 차지한 여성 솔로 다이도게(大道芸) 아티스트인 카나(KANA)와 리듬 연주를 베이스로 코믹한 퍼포먼스와 묘기를 선보이는 듀엣 리즈무라이스의 조인트 공연.

일시 1월 20일(금) 14:00 / 19:0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신청기간 12월 26일(월)~1월 18일(수)

관람방법 선착순 이메일 예약(event@so.mofa.go.jp)

(공연명, 관람 희망 시간, 참가자 성명, 인원수(1인 다수), 연락처 기입)



초등학생일본문화체험교실

흥미로운 일본문화 소개와 즐거운 설 놀이를 체험한다. (선착순 예약 종료)

일시 1월 10일(화) 14:00 / 1월 11일(수), 12일(목), 13일(금), 16일(월), 17일(화), 18일(수) 11:00(각 회당 20명)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회의실

워크숍 '어서 오세요! 일본 차(茶)의 세계로'

전세계에서 활동 중인 일본 차 대사 18명 가운데 한 명인 오가타 준코(尾形純子) 씨의 강의로 일본 차의 매력을 알아보는 워크숍. 일본 전국 생산량 2위를 자랑하는 가고시마 현(鹿児島県)의 차를 시음하고, 참가자가 직접 차 내리는 법을 체험한다. (선착순 예약 종료)

일시 1월 19일(목) 11:00~12:00 / 15:00~16:00(각 회당 30명)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회의실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여행만으로는 알기 힘든,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은 허둥지둥 좌황우돌 유학생활기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보고서

옥수수라는 매력적인 미끼에 낚여 작년 가을 어르신을 뵈러 다케타시로 여행을 떠났다. 6개월 전에 있었던 구마모토의 지진복구는 진행 중이었다.

지진으로 인해 교통편도 썩 바뀌었네.

분고다케타역에 내리니 이 고장의 명물 히메다루마가 할로윈 준비를 하며 나를 맞이해 주었다. 그 사이 다케타시 관광 안내소에는 이곳을 사랑하는 한국인 청년이 근무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침부터 목을 빼고 기다리고 계세요~

버선발로 나를 맞이해 주시는 두 어르신. 2년 사이 가족이 하나 더 늘었다. 멧돼지 보쿠군.

어서와~
엄마 아버지!

나는 이미 두분을 엄마, 아빠라 부르고 있었다.

할머니가 정성껏 만드신 스시와 내가 준비한 갈비찜과 잡채로 저녁은 국경을 초월한 만찬이 되었고 할머니는 내가 머무는 내내 막 도정한 햅쌀로 밥을 지어 주셨는데 그 맛이 꿀맛!

하하 호호

엄지 척!!

할아버지네 옥수수는 든든대로 단물이 주르륵! 하지만 연일 푸짐한 밥상으로 정작 그토록 염원하던 옥수수는 2개 밖에 못먹었다. ㅠ ㅠ

물 좋고 공기 좋고
참을 수 없는 즐거운 시간.

이번 일정의 목표는 두 어르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할아버지께서는 이를 연달아 운전과 가이드를 겸해 오이타 현 곳곳의 명소는 물론 구마모토 현까지 넘나들며 여행을 시켜 주셨다.

1. 백수 폭포 (白水の滝)
2. 이나즈미 수중 종유동굴 (稲積水中鍾乳洞)
3. 아소산 (阿蘇山)
4. 아소신사 (阿蘇神社)

며칠 전 분화해 모두를 놀래킨 아소산과 지난 봄 지진으로 폭삭 내려 앉은 아소신사를 실제로 보니 마음이 숙연해졌다.

모든 여정을 마치며 온 이별의 시간. 할머니는 마치 친정집에 온 딸에게 하시듯 이것저것 싸주셨다. 게다가 나 역시 '카보스'에 홀릭~! 여정의 피곤따위 느낄 겨를도 없이 카보스를 힘껏 찢아서 병에 담았다.

쫄르륵~

아소신사가 대신해서 희생당한거야. 자신을 희생해 마을을 지켜준거지.

모든 여정을 마치며 온 이별의 시간. 할머니는 마치 친정집에 온 딸에게 하시듯 이것저것 싸주셨다. 게다가 나 역시 '카보스'에 홀릭~! 여정의 피곤따위 느낄 겨를도 없이 카보스를 힘껏 찢아서 병에 담았다.

카보스 '동양의 레몬'이라 불리는 다케타시의 특산물.

이번에는 눈물이 아닌 미소로 보내주세요~

내가 탄 버스가 저 멀리 사라질 때까지 할아버지는 애써 눈물을 참으셨다.

일본의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의 온정은 물론 일본의 농촌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 농가민박은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일본에서의 조금 특별한 추억, 함께 만들어 보지 않으실래요?

回復
かには3モン
けんモン
土直3モン